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

송 명 희* · 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Black on Contemporary Fashion - Concentrating on the Late Twentieth Century -

Song, Myung Hee* and Cho, Kyu Hwa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dissertation intended to investigate the black color as a fashion color of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black fashion. Black usually expressed a negative meaning, and was regarded as a color for a mourning and a sacred dress in western culture. There found several periods of black trend specially after 14th century. Black was considered as a traditional color of men's fashion since Dandyism. By the effect of art deco fashion, the perception toward black changed to a new beauty in 20th century.

There continuously found a lot of aspects of black fashion in the late 20th century. In the high fashion, popularity of black could be seen at five different look and style : The era of line alphabet, pantaloons suit style, folklore style, mannish look and unconstructive design by Japanese, and in street fashion, it showed at four different style and fashion : Beat style, mods and rockers style, punk fashion and fetish fashi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black fashion at the late 20th century mentioned above sh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Minimalism, dandyism, nihilism, asceticism, eroticism.

In 1990s, the black appeared under the retro mood, and it should be regarded specially as one fashion trend of inclination of simplicity. Black should be called the representative color of 20th century fashion with the reason of containing the most of aesthetic consciousness in modern fashion.

I. 서 론

요즈음 거리의 패션을 보면 블랙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 입은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시즌의 우연한 패드(fad)라고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브랜드에서는 각 시즌마다 상품기획에서 블랙과 화이트는 베이식 컬러로서 거의 빠지지 않고 생산된다. 물론 블랙에 대한 선호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서구 사회보다 활발하다. 그러나 서구의 현대 패션에서도 블랙 패션은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복식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인 색채는 개인의 선호나 사회 전체의 유행에 따라 결정된다. 복식의 역사를 통괄하여 볼 때 복식 형태가 유행에 따른 변화를 하듯이, 색채에도 유행이 있었다. 현대에는 이러한 유행색을 미리 예측하여 매 시즌 전에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 직물과 부자재를 생산하여 패션을 선도하게 되었

다. 패션 이미지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안되는 유행색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행색과는 달리 블랙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이루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블랙이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독특한 색채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색채의 선택은 색채감정의 효과를 기본으로 하여 나타나며 이는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¹⁾ 각각의 색채는 독특한 색채감각과 색채감정을 가지는데, 이는 시대와 민족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대도시는 국제화가 이루어져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어, 민족적 특성이 갖는 색채감정은 거의 희박하다. 또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아름다움이 일깨워진 블랙은 현대 패션에 적합한 색채로서 20세기 후반에는 오소독스 스타일(orthodox style)의 하이 패션과 아방 가드 스타일(avant garde style)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동시에 큰 호응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은 20세기 후반의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중 블랙을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영(young) 중심의 남녀 복식으로서, 지역적으로는 런던, 파리, 뉴욕 등 서구의 대도시로 국한시켰다. '블랙 패션'은 광의로는 어의 그대로 블랙의 색채를 주로 사용한 복식을, 협의로는 흑인 하위문화에서 그들이 착용했던 복식을 말하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블랙 패션'은 전자를 의미한다. 현대 패션의 색채에 대한 연구로는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²⁾가 있지만, 이것은 아르데코 스타일만 다루었고, 현대 패션 전체를 다루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색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블랙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없었다. 20세기 패션에서 블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20세기 후반의 블랙 패션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블랙 패션의 현상들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색채인 블랙에 내재된 미의식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II. 블랙 패션의 배경과 그 계보

1. 20세기 후반의 일반적 배경

20세기 후반은 이전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중 블랙 패션이 나타난 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실존주의, 도시 환경, 성의 해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실존주의(Existentialism ; 實存主義)는 전쟁 이후 냉철한 이성을 통한 자기 반성적 경향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타났다. 실존주의자에게 객관적 실재는 과학적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으며, 객관적 실재를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불안'이었다. 불안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자각하고, 특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체험하였다. 불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것이어서 대개 철학적인 입장으로 접근되었으나, 프로이트(Sigmund Freud ; 1856-1939) 이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되었다. 불안감은 피상적으로 불확실한 인간 존재의 체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는 비판적인 미래, 혹은 핵전쟁에 대한 공포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실제로 블랙 패션과 '불안' 혹은 '실존주의'가 관련된 예는 비트족부터 펑크 패션에까지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찾을 수 있다. 스트리트 패션 자체가 사회의 하위 문화에서 발생했고, 이것은 모문화(母文化)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들의 기성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만을 품은 태도는 자아 정체감에 불안을 갖게 하였고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 기제(defense mechanism)로서 복식을 사용했는데, 블랙의 색채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기제였다.

둘째, 20세기 후반 세계 각지에서 도시화가 진행된 결과로 도시환경이 등장하였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각 도시간의 고유성은 갈수록 감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 각 곳의 대도시는 비슷한 생활 환경을 지니게 되었다. 중요한 생활 환경이 된 도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였고, 이에 적합한 의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거의 유사한 도시환경에서의 의상은 일정한 형태를 이루었다. 루리(A. Lurie)는

영국의 도시 의상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돌, 시멘트, 매연, 구름 덮인 하늘, 그리고 젖은 보도의 색상을 반영하는 검정, 흰색, 감색, 약간 어두운 회색 등의 색상으로 만들어지며 '위장의 원칙'(the principle of camouflage)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³⁾ 이는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색채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 안정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의 도시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가 등장할 뻔할 수 없다. 고급문화에서는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이 문화의 주인공인데 비해, 대중문화에서는 일반 대중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중세의 평민이나 현대의 대중이 블랙 같은 수수하고 어두운 색을 착용하는 것은 잘 눈에 띄지 않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실용성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대도시에 주거하는 대중과 중세의 평민의 관련성을 볼 때, 이들의 블랙과 오늘날의 블랙 패션도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성의 해방은 성색(性色)의 구분을 흐리게 하였다. 인간 문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몇몇의 색상은 성색(性色)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은 전형적인 남성색이었다. 전통적으로 서양 여성복의 색채는 색채감이 살아 있는 밝은 톤이 사용되었고, 블랙은 상복이나 종교적 이유 또는 한때의 유행색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19세기 이후 블랙을 비롯한 어두운 톤의 색상은 남성복의 색채로 정착하게 되었다. 여성과 남성의 복식이 뚜렷이 구별되는 전통은 현대에 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반의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고 이들은 남성복의 색채를 패션에 수용하여 1930년대의 어두운 톤의 패션이 나타났다.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후 일단 종식되었던 초기와는 달리 1960년대 후반에 다시 제기된 여성해방운동은 생물학적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삶의 유형을 전적으로 다르게 한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반대하여 남성과 여성을 양극으로 보지 않고 두 개의 성을 공유하는 '양성구유성(兩性具有性; androgyny)'의 통합적 인간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1960년대 이후의 복식에 영향을 미쳐, 여성복의 남성화뿐만 아니라 남성복의 여성화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성적인 특성을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남성과 같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게 된 여성은 성역할보다는 고유한 개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의복에서의 전통적인 성개념은 1960년대의 청년 문화에서 남녀가 서로의 복식을 모방함에 따라 파괴되었고, 극단적인 성개방을 의미하는 혁신적인 의복이나 동성연애자들의 복식도 나타났다. 유니섹스와 앤드로지너스 경향의 복식은 이것의 예이다. 특히 블랙은 전통적인 남성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에서 이를 채용하면 새로운 맛을 더하였다. 특히 여성복에서 댄디의 블랙을 채용한 역사를 보면, 직접적인 예로는 남장을 하고 다녔던 초기 여성해방론자들의 복식에서부터, 색채만 뽑아 사용하였던 샤넬, 1980년대의 매니시 룩에 이르기까지 매우 길다.

2. 20세기 후반 복식사적 배경

전쟁은 패션 산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켜, 미국에서는 기성복의 대량 생산 체제가 성립하였고, 영국에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패션 전문가를 육성하여 이후 영국에서 나타날 아방 가르드한 스트리트 패션의 밑거름이 되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였으므로 미국의 스타일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1950년대에 발생한 비트 스타일은 처음에는 미국에만 한정되었으나, 곧 유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파리에서는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1905-1957)가 뉴 룩(New Look) 이후 새로운 실루엣을 꾸준히 제안하였고, 이와 함께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 1895-1972)가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윤곽선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는 블랙을 애용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는 아직 흑백 영화의 시대로, 스크린에서 더욱 명확한 어필을 위해 당시의 여배우들은 블랙을 애용하기도 했다.

1960년부터 유럽은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비사회의 면모를 보였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인 젊은이들은 적은 시간의 노동에 많은 임금으로 의복비에 지출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영 패션의 중심지가 된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에서 모즈와 록커

가 발생하였고, 특히 모즈 룩은 비틀즈와 함께 전세계에 유행하였다. 1960년대의 디자인은 소형화(miniaturization)의 추세에 있었고, 1964년 메리 콰트(Mary Quant)는 미니 스커트를 발표하여 젊은 여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케네디(J. F. Kennedy)와 같은 젊은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1960년대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젊고 다이나믹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팝 아트와 우주 시대의 개막이 패션에 영감을 주었는데, 팝 아트에서 사용했던 원색의 강렬한 대비가 패션에서 나타났고, 착시 효과를 주는 옵 아트의 흑백 대비를 복식의 패턴에 그대로 응용하기도 하였다.

도시지향적이고 남성적인 것이 위주였던 1960년대에는 미아 페로우(Mia Farrow)같은 소년 타입이나, 리즈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 룩(cleopatra look)과 같은 힘이 세고 남자를 쥐어흔드는 형이 새로운 여성상이었다. 앤디 워홀은 “민속풍이 멋지고 패셔너블한 것으로 발전해 결국 기하학적인 룩(geometric look)이 되었고 그것은 클레오파트라 룩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⁴⁾ 1960년대 후반에는 판탈롱 슈트가 유행하였고 청바지가 남녀 구분 없이 착용되어 유니섹스 모드를 정착시켰다. 또한 당시 선호된 튀기(Twiggy)나 페넬로페 트리(Penelope Tree)같은 볼륨없이 마르고 강한 개성의 패션 모델은 미성숙한 이미지와 기성복 입기에 좋은 마른 체형으로 당시의 영(young) 중심의 패션이 무성화(無性化)한 일면을 보여주었다.⁵⁾ 1967년 이브 생 로랑이 블랙을 부활시킨데 이어, 1970년초 하이 패션에서는 가라앉은 톤의 색상이 전개되면서 블랙이 유행하였는데 이를 ‘누아리즘’(noirism)이라고 부르기도 했다.⁶⁾ 이후 모노 톤의 클래식 풍이 지속되는 한편, 히피의 자연주의 경향으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났다.

1976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펑크 스타일은 기성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초기 펑크 룩 가수에서 헤비 메탈 가수의 옷차림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패션은 하이 패션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고, 패션은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 국제화의 추세를 따르게 되었다.⁷⁾

1980년대 초에는 바로크 취미와 함께 전체적으로 매니시 룩이 유행하였다. 이 때 다른 색과 배색되어 사용된 블랙은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의 영향으로 과거의 모드를 현대 패션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르데코의 블랙, 남성복적 요소의 블랙, 동양적 요소로서의 블랙이었다. 한편 뉴 웨이브 패션에서 나타난 앤드로지너스(androgenous) 경향의 하나로 페티시 패션(fetish fashion)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은 전반적으로 잠시 블랙이 퇴조하고 여러 가지 색상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유럽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적인 경향 때문이었다. 1980년대 말에 보디 컨셔스 라인과 함께 블랙은 다시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패션에서 생태학(ecology)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색채에도 에콜로지 컬러 붐을 일으켜 블랙은 잠시 퇴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의 하나로 블랙이 다시 등장하였다.

3. 블랙 패션의 계보

블랙은 색채에서도 기본적인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복식사에서 블랙을 사용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블랙은 어두움과 결부되는 속성이 있고, 죽음, 절망, 불행, 억압 등을 연상시키므로 서구 패션에서 블랙이 사용된 가장 오랜 전통은 로마에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블랙의 토가를 착용한 것이었다. 14세기에 프랑스 버건디의 궁정에서 블랙의 유행이 있었고, 15세기에는 스페인의 국력이 강대해지면서 스페인 고유의 블랙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유행하였다. 8세기에 스페인을 침입한 무어인의 복식에서 유래한 스페인의 블랙은 카톨릭 문화에 받아들여져 스페인의 대표적인 의복색으로 정착하였고,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에 걸친 스페인의 황금 시대에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유행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새로 떠오른 부르주아 계급의 복식에서 블랙이 사용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공식적인 의상에서 블랙을 사용하였고, 19세기에는 영국의 댄디가 블랙을 애용하여 남성복의 색채로 정착시켰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블랙이 시크(chic)한 색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블랙의 미(black-beauty)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후의 블랙 패션에 대한 전제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할 색채인 블랙을 예견하는 동시에 밀받침해 주는 패션으로는 남성복에서는 댄디 복식, 여성복에서는 아르데코 패션을 들 수 있었다.

19세기 초 영국의 댄디는 좋은 질, 좋은 색채의 배합, 좋은 양복의 맞춤을 추구하여, 과장 없이 의복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입고자 하였다. 댄디 중의 하나인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에게 댄디즘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닌 삶의 방법이었고, 특별히 검은 연미복에 애착을 가져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⁸⁾

“저렇게 조롱받았던 연미복이지만 그 아름다움과 고유한 매력이 없을까? 그것은 현대라는 고뇌로 가득 찬 검은 마른 어깨에까지 영구히 상을 입은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필요한 의복이 아닐까? 검은 연미복이나 프록 코트는 전 인류의 평등한 표현이라는 정치적인 미 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혼의 표현이라는 시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⁹⁾

댄디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근대 사회의 주축인 부르주아에 대하여 증오와 반항을 나타내는 반 부르주아(anti-bourgeois)라는 것이다.¹⁰⁾ 특히 이들은 복식을 통하여 일반 대중과 구분되는 그들의 정신적인 우월성을 표현했고, 이에 검정색과 흰색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댄디 복식에서 블랙이 나타나는 예는, 프록 코트, 르댕고트, 케이프, 크라바트 등의 아이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순백의 슈미즈와 대조되어 흑과 백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댄디는 의복색에서 가능한 화려함을 배제하고 짙은 톤의 색상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영국 신사복 유행의 기원이 되었으며, 후에 전세계 남성복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블랙이 새롭게 인식된 계기는 아르데코 패션이었다. 아르데코 패션의 특징적인 색채는 블랙을 비롯하여 금속의 색과 빛, 야수주의의 원색, 파스텔 색조이며, 이 중에서 블랙은 아르데코 패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흑인예술의 도입으로 예술가들은 블랙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흑인문화의 블랙과 원시적인 소박함이 아르데코 패션의 단순성

(simplicity)과 연관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프랑스로 들어온 기능주의가 일반적인 아르데코 조형과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아르데코 패션에서 과잉 장식을 배제하려던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장식미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차치하고라도 패션의 영역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블랙만의 고유한 매력에 매료되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¹¹⁾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가 여성 노동력을 요구하자, 여성 복식의 모든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20년대 중반의 패션은 실용적인 직물의 단순한 스타일과 함께 검정색, 갈색, 회색 계통의 어두운 색조가 주류를 이루었고, 샤넬, 몰리뇌, 장 파투 같은 디자이너가 이러한 의상을 제시하였다. 샤넬(Chanel)은 싸구려 직물로 인식되었던 저지를 사용하였고, 당시 여성복에서 상복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블랙의 아름다움을 일찍 감지하였다. 그녀의 블랙에 대한 선호는 특별한 것으로 현대 패션에서 블랙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했고 이는 현대 여성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장 파투(Jean Patou)도 성인다운 엘레강스를 표방하며 단순하고 깨끗한 선의 기하학적인 의상을 만들었고, 단순성을 지향하면서 샤넬과 경합 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도시 여성의 패션은 동시대의 회화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공황 전야의 '인간 소외' 현상을 표현하였다.¹²⁾

III. 블랙 패션의 변천

1. 하이 패션-Orthodox Style

1) 라인 알파벳 시대(The Era of Line Alphabet)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모드가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뉴 룩을 성공시킨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시즌마다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전세계 모드를 지배하였다. 그는 의복의 형태를 중요시 하였으므로 의복에서 실루엣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형태를 완성시키기 위한 부차적인 도구였다. 그의 작품 속의 블랙은 오트 쿠튀르의 작품으로서 한층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색채보다 형태를 우선하는 그의 조형의지가 현란한

색채를 배제하게 된 동기인 듯하다. 그러므로 디오르는 명확한 윤곽을 가진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할 때 블랙을 사용하여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주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색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흑(黑)과 백(白)만으로 컬렉션의 전 작품을 만들어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실패한 드레스를 색채로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보다 색채는 재단된 복식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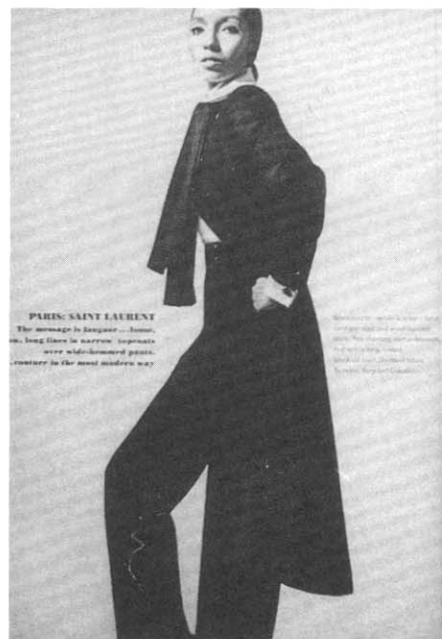
의복에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경우 블랙을 사용한 예는 디오르 이전에 이미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도 나타났다. 그는 이미지를 하나의 형(形)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실루엣의 작품에는 블랙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인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어 메리 퀴트의 미니 스타일에서도 블랙을 사용하여 조형적인 측면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사용에도 블랙을 사용함으로써 명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었다. 샤넬의 저지를 필두로 1960년대에 새롭게 소개된 비치는 소재, 광택 소재, 반짝이는 소재 등은 블랙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미래 패션의 전개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미래 패션의 승패의 향방은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사용에서 결정된다고 할 때, 앞으로도 블랙의 생명력이 일시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팬탈롱 슈트 스타일(Pantaloon Suit Style)

루디 건릭의 토폴리스 수영복의 발표와 함께 1964년 샤넬과 쿠레주가 팬탈롱 룩(pantaloon look)을 발표하였고, 1968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스포츠 웨어로서가 아니라 정장과 타운 웨어로서의 팬츠 슈트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남녀 모두를 위한 팬츠 슈트를 일컬어 팬탈롱 혁명(Pantaloon revolution)이라고 하였다. 팬탈롱은 여성을 위하여 도시 생활에 적합하게 제시된 새로운 의복형으로서, 여성복을 스커트 일색에서 탈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복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팬츠를 여성복에 도입할 때 여성스러움을 잘 살려낸 팬탈롱

은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파티 드레스로까지 등장하였다.

팬탈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브 생 로랑은 블랙을 특히 애용한 디자이너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검은색이 윤곽을 뚜렷하게 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현대적인 색채라고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쿠레주가 우주 시대에 걸맞은 미래적 이미지로 흰색을 제시한 이래, 세계의 모드는 스페이스 룩에서 영향을 받았다. 스페이스 룩 이미지의 은색과 흰색 돌풍은 블랙을 유행색에서 한 때 퇴조시켰으나, 1967년 추동에 이브 생 로랑은 블랙을 부활시켰다. 1968년 추동에는 블랙의 실크 저지로 된 폭넓은 팬츠가, 1969년 이후에는 포멀 웨어의 팬츠가 유행하였고, 이브 생 로랑의 블랙 팬탈롱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전세계 여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그림 1). 1970년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시대사조가 있었는데, 히피와 함께 나타난 자연회귀운동과 여성운동의 확대였다. 이중 후자인 여성운동의 확대에 의하여 직업을 가지고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복식의 수요가 창출되었다. 전문직의 여성들은 일하기에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운 의복을 원했고, 팬탈롱이나 팬츠 슈트와 같은 활동적인 아이템은 이러한 여성운



〈그림 1〉 이브 생 로랑의 블랙 팬탈롱, 1968, Vogue.

동의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다.

3) 포클로어 스타일(Folklore Style)

1970년대 초에는 한편으로는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활동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의 패션이 유행하는 한편, 민속복에서 영감을 받은 포클로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민속복의 색채는 원색 경향으로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여성적인 강렬함 또는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맛이 있다. 이것은 세련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세밀한 감각의 색채보다는, 원색 풍의 색채가 중심이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강렬한 느낌의 원색과 함께 단순한 블랙, 그리고 흰색들이 대비 효과를 주면서 사용된다. 아무리 원시적인 종족의 복식에서도 블랙은 반드시 나타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비중있는 색채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민속복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에서도 블랙은 중요한 색채가 되었다. 특히 블랙을 다른 색상과 대비시키면, 각각 색상의 색채감각을 더욱 강하게 살린다. 그러므로 갖가지 원색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민속복에서의 블랙은 중요하다.

1960년대 말부터 민속복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이 많이 제안되었다. 영화 '닥터 지바고(Doctor Zhivago, 1966)'가 상영되면서 길이가 긴 러시아풍 코트와 미니 스커트를 매치한 러시아 룩이 유행했고,¹⁴⁾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포클로어 스타일이 전개되었다. 이 때 이브 생 로랑이 발표한 민속복 풍의 패션은 1975년에는 모로코에서, 1976년에는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1977년에는 다시 스페인에서 이미지를 빌려왔고,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패션에서 강렬한 원색과 함께 블랙을 대비시켰다.

4) 매니시 룩(Mannish Look)

19세기 이후 여성복에서 남성복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20세기 전체에 걸쳐 활발히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는 여성복에 팬츠 슈트가 유행했고, 1970년대 말에는 남성복적 요소를 지닌 몇몇 아이템의 유행이 아니라 남성 취향의 여성 패션인 매니시 룩이 성립했다. 매니시 룩은 남성적 옷차림에 페미닌(feminine)감각을 더해 여성다움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남성 스타일의 모방이나 남장이 아닌, 독립적인 여성들이



〈그림 2〉 켈빈 클라인의 스모킹, 1982, Vogue.

즐거워 입을 남성 취향의 복장이다.

하이 패션에서 매니시 룩이 나타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1978년 춘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등장한 턱시도 룩(tuxedo look)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스모킹(the smoking)'이라는 테마로 하이 패션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림 2〉. 이는 남성 정장의 하나인 턱시도의 이미지를 여성 스타일로 도입한 룩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형태는 남자 턱시도 천이나 블랙의 새틴 또는 블랙의 벨벳을 사용하여 재킷의 형태를 본뜨거나, 팬츠의 양쪽에 견 브레이드를 달기도 하였다. 블라우스의 가슴 부분에 주름을 잡거나, 셔츠의 칼라에 검은 나비 넥타이 나 검은 끈, 리본을 묶고, 하이 힐을 맞추어 신기도 하였다.

팬츠 슈트를 유행시켰던 장본인인 이브 생 로랑은 이번에도 턱시도 룩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자유로운 현대 여성에게 어울리는 의상이었으므로, 파리의 하이 패션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다. 뉴요커(new yorker)의 성원에 힘입은 랄프 로렌, 켈빈 클라인 등의 뉴욕 디자이너들도 턱시도에서 영감을 얻은 룩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의복뿐만 아니라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블랙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구두와 가방, 모자로부터 액세서리와 스카프에 이르기

까지 블랙을 사용하였다.

5) 비구축적 디자인(Unconstructive Design)

1983년 6월 Vogue지는 패션의 혁신은 일본에서 온다고 하였다. 이세이 미야케(三宅一生), 콤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레이 가와쿠보(川久保玲), 요지 야마모토(山本米雀司), 켄조 다카다(高田賢三), 마츠다 미츠히로(松田光弘) 등의 수많은 일본의 디자이너가 파리의 쿠티르와 스트리트 패션에 침투하였다.¹⁵⁾ 이들의 의상은 일본의 에도(江戸) 시대 이후 시민 문화의 등장과 함께 성립된 이끼호상(いき好尚)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색(茶), 남색(藍), 쥐색과 흑색, 백색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는 흑색, 회색, 백색 등의 뉴트럴 색상을 기조로 어두운 느낌에 청결함(clean)을 더한 색상을 제시하였다.¹⁶⁾ 이들은 어두운 색조, 특히 블랙에 대한 선호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표방하였다.

“나는 블랙이라는 색에 항상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 왜인지는 나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블랙에 대한 내 느낌은 10년 전보다 더욱 강하다.”(레이 가와쿠보)¹⁷⁾

“나는 선명하고 밝은 체리 색을 쓸 수 없다. 잠시동안 그런 색과 행복하지만 3분 후면 지루해진다. 나는 패션의 흐름이 흥분되고 밝은 색에서 바뀌기를 기다린다. 나는 나의 옷들을 차분하고 흥분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요지 야마모토)¹⁸⁾

당시 일본 디자이너들의 의상은 무형태성, 부정형성, 무색채성의 본질에 착수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는데,¹⁹⁾ 레이 가와쿠보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후의 폐허에서 의복의 본질을 찾아내었다. 특별한 형태가 없는 그의 작품은 폐허의 이미지를 주는 구멍 있는 직물을 레이스의 하나로 여기며 사용하였고, 색채의 측면에서도 검정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철학적인 디자이너라고 평가받는 요지 야마모토는 회의주의론자로, 삶의 덧없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의복이 실제로 입혀지는 신체보다 그것을 입는 착장자의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블랙을 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블랙은 일본 문화의 사무라이 정신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²⁰⁾

2. 스트리트 패션-Avant Garde Style

1) 비트 스타일(Beat Style)

비트(beat)의 사전적 의미는 “계속하여 세계 치다”라는 뜻의 동사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beatitude (=supreme happiness,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축약된 말이며 실제로 그들은 신비한 힘으로 축복받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초 한국전쟁, 번영과 순응주의의 아메리칸 드림에 환멸을 가진 후, 비트는 단순히 ‘beat down(낙담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¹⁾ 1950년대 미국 대학 캠퍼스의 학생과 지식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집단인 비트족(beats)은 기타와 매트리스, 재즈나 블루스에 대한 몇 장의 레코드와 책만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흑인 재즈 음악이나 거리의 갱들에게서 영향 받은 은어를 사용하였고, 동양 종교 사상 특히 선(禪) 사상에 관심을 가져 명상도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깨달음보다는 이국적인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트족은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생활의 단조로움, 사회 전체에 만연된 순응주의, 정치의 무의미성, 진부한 대중 문화의 현실을 경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성향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므로,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 섹스, 동양의 신비주의 등을 통하여 현실을 잊고 도피하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들을 현대의 보헤미안이라고 불렀고, 홀랜더는 이들의 복식에 나타난 블랙을 일컬어 ‘모던 보헤미안 블랙(modern bohemian black)’이라고도 하였다(그림 3). 당시 사회에서의 비트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아 영화나 잡지 기사로 이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다루어졌다. 문학을 통하여 비트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있었다. 의상에서 현란함이나 화려함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그들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비트 스타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반드시 수염을 길렀고, 안경을 쓰고, 헤어스타일은 짧게 하였다. 대표적인 의복은 검정색의 터틀넥 스웨터(turtle neck sweater)였고, 수수한 색의 플란넬 셔츠도 입었다. 블랙, 회색, 카키색의 데님이나 코듀로이의 진즈를 입고, 맨발에 샌들을 신었다. 블랙의 가죽



〈그림 3〉 모던 보헤미안 블랙의 여성, 1948, The Language of Clothing

재킷이나 블랙의 웨이스트 코트를 착용하기도 했다. 여성 역시 큰 사이즈의 블랙 스웨터에 어두운 색의 짧은 스커트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거나, 블랙의 레오타드, 또는 회색이나 검정색의 드레스를 입고, 블랙의 가죽 부츠를 신었다. 금속제의 U자형 핀으로 고정시키거나 느슨하게 뒤로 빚어 어깨까지 길게 드리운 헤어스타일에 창백한 인상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립스틱은 하지 않고, 블랙으로 강조한 눈화장은 너구리눈(raccoon eyes)이라고 불릴 만큼 아이새도우를 많이 사용하였다. 당시의 기성세대는 이러한 스타일을 전통적 생활 방식에 비해 무례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이들의 복식은 곧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받아들여져 블랙의 터틀넥 스웨터와 같은 아이템은 일반 패션으로 흡수되었다.

2) 모즈와 록커 스타일(Mods & Rockers Style)

20세기 후반의 영국과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세대의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국의 모즈와 록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여 존재했던 동시대의 스타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잦았는데, 이를 피터 요크(Peter York)는 스타일 전쟁(Style Wars)이라고 불렀다.²²⁾ 모즈와 록커의 복식에서 블랙은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스타일이 상이하듯이 이들이 사용한 블랙도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1957년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를 배경으로 발생한 모즈(Mods)는 소비 지향적인 노동자 계층의 자녀로 구성되었다. 카페바(café bar)나 클럽에서 소비 지향적 생활을 하였고, 낮은 지위와 업무를 거부하고 평등한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여가 시설의 우아한 생활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이들은 오토바이보다 스쿠터를 선호하여 스쿠터 보이(scooter boys)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스쿠터는 생활의 스피드와 죽음을 초월한 우월감을 상징하였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여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였고, 록 음악과 트위스트 춤에 몰두하였으며, 성 정체감을 해방하여 유니섹스 모드의 등장에 이바지하였다.

모즈는 초기에 테디 보이(teddy boys) 스타일을 적용하였다. 19세기 영국 에드워드 시대의 스타일을 흉내낸 테디 보이의 에드워드인 록은 상류 사회에 대한 그들의 야심과 열망을 전달하는 한편 상류 문화에 대한 반항을 풍자적으로 표출하는 이중적 의미였다. 테디 보이 스타일은 길고 몸에 맞는 실루엣에 칼라나 소매 끝이 벨벳으로 된 재킷, 보우 스트링, 통이 좁은 드레인 파이프 팬츠, D.A. 헤어스타일 등이다. 이 스타일을 적용한 초기의 모즈는 비비드 컬러의 밝은 색상을 선호하면서, 통이 좁은 바지, 두 톤(two-tone)의 광택있는 모헤어 소재로 만든 짧은 재킷과 같은 이태리 식의 우아한 복장을 추구하였고, 후기에는 파카와 Fred Perry 셔츠같은 캐주얼 웨어가 등장하였다. 전반적인 컬러는 black과 white을 기조로 한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색상이었다. 밝은 톤의 색상이 모즈록의 큰 특징이기는 하였으나 무채색인 black과 white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즈는 19세기 이래 상류 사회의 남성복을 중심으로 전승된 댄디 복식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여, 기존 사회에 대한 저항의 매개체로 썼다. 모즈는 비록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류 사회의 우아한 생활을 지향하였고, 이는 black과 white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비틀즈가 모즈 스타일을 채용하면서 그들의 음악과 함께 전세계로 파급되었다.

한편 반항적인 불량배의 이미지의 블랙을 착용한 것

은 록커(Rockers)였다. 모즈가 스쿠터를 애용한데 반해 모터사이클을 탄 이들은 검은 가죽 재킷을 많이 착용하였고 여기에 장식을 덧붙여서 록커의 동질성과 자아를 표현하였다. 1950년대 말 록큰롤의 인기와 함께 모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발생한 록커는 일찍 학교를 그만둔 미숙련 노동자였으나 테디나 모즈와는 달리 소비 지향적인 생활과 유행을 거부하였다. 남성의 자유로운 유흥자의 꿈을 표방한 그들은 오직 현 재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여 인내와 강인한 육체를 자부하였고, 댄스와 록큰롤에 심취하였으며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외모를 지녔다. 1962년 런던의 Ace Café같은 곳에 모이던 초기의 모터사이클 광들은 Coffeebar Cowboys, Ton-up Boys, Leather Boys등으로 불리다가, 1963년에서 1964년에 모즈의 팽창과 함께 록커도 하나의 스타일로 인정받았다. Ton-up boys가 모터사이클과 레이스에만 관심을 둔데 비해, 록커는 록큰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그들의 관심을 넓혔다.

초기에는 ton-up boys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스타일이었으나, 록커는 여기에 장식을 덧붙여 과장하였는데, 표식을 그리고 금속 징을 여러 줄 박고 부족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문장이 있는 배지를 달았다. 기본적인 스타일은 블랙 가죽 재킷, 검은 티 셔츠나 스웨터, 검은 바지나 청바지 이외에 몸에 피트되는 타이즈 같은 바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재킷과 청바지는 번쩍이는 지퍼, 조임쇠, 장식용 단추 등의 장식이 있거나, 데이 글로(day-glo) 색상으로 훈장 등을 새겨 넣기도 하였으며, 오토바이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미래에서 온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커다란 검은 색 안경을 썼고, 모터사이클 부츠도 필수적이었다. 특히 블랙 가죽 재킷은 반항의 상징과 동시에 실용성을 내포하였고, 때로는 재킷의 칼라를 세워 착용하여 갱과 같은 이미지로 공격적인 인상을 강조하였다. 홀랜더는 이들의 블랙을 '모터사이클 갱 블랙(motorcycle gang black)'이라고 불렀다.

3) 펑크 패션(Punk Fashion)

1970년대에 들어와 패션계에 일어난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펑크 패션이다. 영국 스트리트 패션의 파괴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펑크는 1980년대 미국과 영

국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원래 펑크는 1976년 영국의 록큰롤 그룹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펑크 록(punk rock)에서 시작되었다. 펑크 록은 이전의 1950년대나 1960년대의 록큰롤과 비교하면 절규나 소음같은 음악이었고, 펑크 밴드는 무대 위에서 비이성적이고 격렬한 행위와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하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영국의 펑크 밴드는 부드러운 창법을 구사했던 엘튼 존(Elton John)이나 피터 프램튼(Peter Frampton)같은 부르주아적 음악에 대해 비난하였고, 조니 로튼(Johnny Rotten)은 '이 가수들은 그들 자신의 사랑과 고뇌를 노래하고 있지만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²³⁾

펑크 패션은 Hell's Angels의 오토바이 복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매저키스틱(masochistic)한 일면을 지녔다.²⁴⁾ 그들의 패션은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옷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등의 방법으로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기괴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플라스틱이나 그물로 된 셔츠에 블랙 가죽 재킷을 입었는데 직설적인 표현의 슬로건을 적기도 하였다. 면, 고무, 플라스틱으로 된 팬츠에 가랑이를 사슬로 연결하여 안전핀, 자물쇠, 쇠사슬, 면도날, 볼트 등을 주렁주렁 매달았다. 안전핀을 귀나 코에 꿰어서 장식하고, 가죽에 금속 징을 박은 팔찌와 장갑, 벨트를 착용하였다. 창백한 얼굴에 볼위나 눈 둘레를 눈에 띄는 색으로 화장하였고, 모히칸 헤어스타일을 하였는데 머리카락 끝을 뾰족하게 고정시키고, 빨강, 노랑, 초록으로 염색을 하거나, 검은 모발을 금발로 보이도록 표백하였다.²⁵⁾ 펑크는 특히 블랙을 선호하였는데, 검은 입술의 메이크업, 검정 가죽 점퍼, 그리고 검은 글씨의 무정부주의 깃발에 나타났었다. 블랙의 이미지는 절망과 죽음이었다. 펑크의 블랙은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공허한 상태를 표현하였다. 이것의 상징적 효과가 매우 강하므로 펑크 패션이 확산될 때 블랙이 펑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영국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난 펑크는 다른 나라의 스트리트 패션과 하이 패션에도 크게 파급되었다. 펑크를 하이 패션에 도입한 디자이너 중 하나인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는 자신의 작업은 펑크가

아니라 '개념상의 시크(conceptual chic)'라고 주장하였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과 펑크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그녀는 펑크의 전형적인 액세서리인 안전핀과 면도칼, 쇠줄을 금, 은, 보석의 값비싼 소재로 만들고, 옷에 구멍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드레스를 만들었다. 1978년 춘하에는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도 펑크가 출현하였고, 이 때에도 펑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것은 블랙이었다. 클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 ; 1949-),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 1945-),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 1952-) 등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디자이너들은 검은 가죽을 개성있게 표현하여 발표하였다.

4) 페티시 패션(Fetish Fashion)

페티시의 어원은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무생물을 지칭하여 '마력을 거는'이라는 뜻으로 '페이티코(feitico)'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고, 이것이 영어의 페티시(fetish)로 변화하였다. 인류학에서 사용하던 '페티시'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정신과 분야에서 인체의 관능적인 힘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성적 힘을 지닌 물체의 설명에 사용되었다. 페티시 패션은 의복에 대한 페티시즘적 관념에서 발생하였다.²⁷⁾ 페티시즘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무성의 물체를 사용할 필요를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주로 남성에게 많으므로 그 물체는 주로 여성의 신체나 의복과 관련되어 있다.²⁸⁾

페티시 패션이란 의복을 매개체로 하여 성도착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패션을 말하며, 1983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여 아직은 생소한 용어이다. 구체적으로는 레이스 장식의 코르셋, 스타킹, 가터, 스틸레토 힐 등 신체를 조이고 압박하는 의복의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고무, PVC, 플라스틱 등의 번들거리는 질감이 나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페티시 패션이 1980년대에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고, 고대 크리트의 복식으로부터 중세의 코르셋, 댄디의 크라바트 등 인체를 과도하게 잡아매는 형태로 된 대부분의 복식을 모두 페티시 패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83년 1월 런던의 소호에서 'Skin 2'라는 클럽이



〈그림 4〉 Skin 2 클럽의 남녀, 1983, Street Style.

문을 열었는데, 고무나 가죽, PVC로 된 페티시 패션을 차려 입은 많은 남녀들이 모여들었다²⁹⁾(그림 4). 이것은 지하조직으로만 존재했던 페티시 패션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페티시 패션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의복을 구하였으므로 'Skin 2' 클럽 이전에는 페티시 패션의 옹호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1984년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SEX'를 개업하면서, 페티시 패션은 적극적으로 패션의 주류에 수용되었다. 1980년대의 페티시 패션에서는 블랙의 가죽, 고무, PVC, 플라스틱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가죽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재는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펑크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고무와 같은 소재는 건축과 인테리어의 하이테크 디자인에서 쓰이다가 인체에도 입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소재의 사용은 하이 패션에도 영감을 주었다.

펑크를 잇는 페티시 패션은 영국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하나인 Pervs에 의해 주로 착용되었다. 그러나 펑크가 사회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복식으로 표출한 데 반해, Pervs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패션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페티시즘에 기반한 것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도착을 의미하였다. 페티시 패션은 영국의 Pervs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널리 착용되

어, 이들을 위해 많은 잡지가 발행되었고 많은 클럽이 운영되었으며, 페티시 패션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페티시 패션은 스트리트와 나이트 클럽을 거점으로 발전하여 어떤 다른 스타일보다 영향력이 있었고, 대중 음악과의 관계에서 더욱 빠르게 소개되었다. 록 그룹의 펑크적 이미지를 발전시킨 아방가르드한 성향을 가진 가수 - 예를 들면 컬처 클럽(Culture Club)의 보이 조지(Boy George) - 복장에서 페티시즘적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의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앤드로지너스 경향의 하나였다. 이들의 음악이 1984년 세계 인기 순위에서 랭크되면서 페티시 패션이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페티시 패션의 블랙은 타고난 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성을 상징하였다. 즉 남성이나 여성으로 자신의 성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성이었다. 이것은 번들거리거나 축축한 느낌의 블랙에서 쉽게 생성되었으므로 고무나 PVC 등의 소재로 신체를 압박함으로써 새로운 성적 쾌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성의 형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AIDS라는 심각한 현실적 문제와 직면하기도 하였다.

IV. 20세기 후반 블랙 패션의 미의식

1. 미니멀리즘(Minimalism)

1964년 영국의 메리 퀴트의 미니 스타일이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니의 열풍이 불었는데, 이는 의복의 사이즈를 극단으로 최소화하려는 미니멀리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블랙은 색의 속성상 수축색이기 때문에 면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현대 패션에서는 최소 지향의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니멀리즘이란 최소의 조형 수단과 최소의 제작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서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적 사조이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minimal)'의 뜻으로 원래는 건축 용어였다. 60년대 후반의 미국의 예술가였던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와 도널드 주드(Donald

Judd; 1928-)가 최소한의 소재와 수법을 사용한 평면과 입체를 제작했는데, 이것을 미니멀 아트(Minimal Art)라 하였다.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인 특성으로는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본질 추구의 한 수단으로서의 단순성(simplicity), 하드 에지(hard-edge)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한 형태와 뚜렷한 경계선의 명료성, 엄격한 퓨리터니즘으로 어떠한 애매성도 제거하려는 비관계적 구성을 들 수 있다.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디자인 자체를 단순히 하거나, 옷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인간의 내부적 정신 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형적 특색이 단순화를 지향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시대의 조형 양식으로서 미술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나타났다. 板倉壽郎은 현대 복식의 조형적인 특성을 '순수성의 지향'과 '우연성의 존중'이라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복식에서의 순수성의 지향이란 평면적, 고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장식적 수공예적인 요소를 부정하여, 움직임에 따라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입체적 실루엣의 추구라고 하였다.³⁰⁾ 즉 인위적인 구조선을 배제하고 재단, 봉제, 장식 등의 인위적인 제작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복식에서 순수성의 추구이다.

다른 색채를 없애고 블랙 한가지 색상만으로 된 룩은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중 가장 특징적인 단순성(simplicity)을 나타내기 아주 적합했다. 블랙은 원래 광선이 완전히 사라져 색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특히 미니멀리즘에서 블랙의 사용은 다른 색채를 모두 배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블랙만 사용된 룩으로는 다른 색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의복에서 액세서리까지 블랙만 사용하였던 '83-'84년 추동 시즌의 '올 블랙 룩(all black look)'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리바이벌되는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는 최소한의 형태를 제안하는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복식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블랙이 형성하는 뚜렷한 윤곽선은 미니멀리즘의 명료성과 연관되었다. 그러므로 기하학적인 새로운 실루엣이나 혁신적인 소재를 소개하는 디자인의 경우 블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토 쿠튀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할 때 블랙을 사용하는 전통은 발렌시아가

이후 디오르의 수많은 룩, 피에르 가르맹의 기하학적인 룩 등이 그 예이다. 블랙 한가지의 색상만으로 표현된 복식은 미니멀리즘에서 절제의 미학이 최대한 표현된 것이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금욕주의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2. 댄디즘(Dandyism)

댄디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댄디즘은 일반 사회의 속물들에 대한 저항 정신의 상징이었다. 19세기의 댄디는 자신의 복장에 정성을 다한 완벽함을 추구하였고, 명예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이들의 복식에 나타난 블랙은 변화와 격동의 시대에 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고뇌와 우수에 잠겨 있는지를 의미하였다. 이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을 떠나 허구의 세계에 관심을 두었다. 당시 금력(金力)으로 사회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신흥 부르주아에 대해 경멸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였으며, 자신들만의 정신적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복식은 완벽한 세련미를 추구하였는데, 이후 영국의 신사복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남성복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 성의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복에서도 남성복과 같은 댄디즘적 요소를 표현하였다.

남성복에서 보면 예장에는 물론이고, 20세기 후반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상류 사회를 지향했던 스타일에는 반드시 댄디즘의 정신이 배어 있었다. 1950년대 인종 차별의 현실 속에서 상류 사회를 지향했던 흑인들의 스타일로 나타났던 주트 슈트(zoot suit)에서부터, 자신들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 벗어나려 했던 테디 보이스의 에드워드안 룩, 모즈의 완벽하게 피트된 스타일에는 댄디즘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자신의 정신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속물들에 대해 멸시하면서 완벽하게 차려 입는 취미를 가진 댄디의 특성이 20세기 후반의 패션에 전승된 것이었다. 특히 댄디 복식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던 블랙은 20세기 후반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슈트, 재킷, 테일 코트 등의 아이템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한편 현대의 여성복이 남성복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댄디즘은 여성복에도 나타났다. 20세기 초반의 일부 여성해방론자들이 댄디 복식을 직접 채용한 경우가 있

었으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남장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댄디즘이라고 할 수 없었다. 여성복에서의 댄디 복식의 차용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1980년대에 유행한 매니시 룩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하이 패션에서는 댄디의 테일 코트나 스모킹과 같은 아이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빌려 왔다. 이들은 댄디의 특징인 블랙을 사용함으로써 완벽한 차림새로 일반 속물과 구별되어 그들의 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려 했던 댄디의 상징적 의미를 계승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여성은 사회에서의 위치가 남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여성의 정신적 면모의 강조를 더욱 필요로 하였다. 댄디 복식의 차용은 이러한 요구를 세련되게 충족시키는 방법이었다.

3. 허무주의(Nihilism)

A. Camus는 그의 글 반항인(L'homme révolté)에서 오늘날 유럽 전체 문명은 니힐리즘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였다.³¹⁾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이란 모든 이상과 가치 표상 및 긍정적 목표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관적 입장과 태도를 일컫는 말이며, 허무주의적 경향은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소부르주아적 지식인 계층 일각에서 종종 제국주의 및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동시에 절망과 체념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현실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소극적으로는 도피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는 반항한다. 이 때 소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종교적인 금욕주의가 사용되어 모든 현세적인 행동은 덧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거부되기도 하고, 적극적인 반응으로는 모든 국가 조직과 국가 권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조류가 있는데, 이것을 무정부주의(아나키즘; Anarchism)이라고 하며, 소부르주아적이고, 사이버 혁명적인 특징을 갖는다. 레닌도 무정부주의는 절망의 산물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뒤집혀진 부르주아적 개인주의라 하기도 하였다.³²⁾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펑크는 기성세대가 독점한 사회에서 좌절과 야망의 포기를 경험하고 허무주의, 무정부주의로 도피하였다. 펑크 음악가 Johny Rotten은 "우리는 음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 빠져 있다."³³⁾라고 하였으며, 펑크의 하나

인 Danny는 Val Hennessy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핑크는 노동계급이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할 일이란 없으며, 고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들이란 쓰레기 같고 쓸데없는 일들 뿐이기 때문이오. 나는 학교의 변소 뒤에서 그 체제와 싸웠소. 헨리 8세나 다른 부자들에게 관해 배우는 것처럼 나는 거기에 앉아 낙서를 읽었소... 어느 누가 생애 가장 최고의 시기를 연립 주택을 사기 위해 그리고 밤마다 쓰레기 같은 TV를 보기 위해 보잘 것 없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인가?... 어쨌든 내일 당장 수소폭탄이 터져 모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이때에 어째서 미래를 설계하고 돈을 저축한다던가 한 단 말이오?”³⁴⁾

핑크는 노동 계층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 상황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분노, 후기 산업 주의의 포스트 모던 라이프(post-modern life)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꼈다. ‘중심의 상실’, ‘무(無)와의 조우’, ‘적합한 생활 철학의 결여’는 허무주의와 직결되어,³⁵⁾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부정부주의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핑크는 미에 대해 통용되는 개념을 철저히 부수고 매력이나 취향에 대한 생각을 쓰레기 취급하였으며, ‘패션이란 무엇인가’, ‘스타일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물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핑크의 퀘변이었다.³⁶⁾ 즉, 세련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성의 다양화를 인정해 주는 사회에서 본격적인 추의 미학을 받아들였다. 핑크는 의복에 충격 가치를 사용하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눈에도 자신이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자아 절규(ego screaming)’라고 하는데, 합리적, 기능적 근거로만 인간을 연결하는 도시화 사회의 비인간적 본질과 대중사회의 거대한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적 영향력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³⁷⁾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대중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고립 등은 핑크 패션에 블랙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더욱 표현이 용이하였다. 핑크는 블랙 패션을 통하여 통념적인 미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였는데, 이는 하이 패션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미니멀리

즘이나 댄디즘의 입장에 있던 블랙과는 일직선상의 양극단에 있는 것과 같다.

4. 금욕주의(Asceticism)

한편 블랙의 미의식으로서 금욕주의적인 양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커다란 의미에서의 허무주의의 한 갈래였다. 동시에 이는 미니멀리즘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색채의 종류 자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은 그 뉘앙스 안에 강한 절제, 즉 금욕주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블랙으로만 만들어진 심플한 드레스는 물질적인 세계를 경멸하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나아가서 상류 사회의 고상함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 파리 패션에 붐을 일으켰던 일본 디자이너의 의상에 블랙이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동양에서 흑색(黑色)은 오방색의 하나로 중요시되는 관습이 있었으며 서양보다 블랙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동양에서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흑색을 색이 없는 상태인 무색(無色)의 세계로 보았다. 색(色)은 욕망(慾望), 특히 남녀간의 정욕, 색욕, 여색이며 악(惡)의 근원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색이 없다는 것은 바로 동양적 의미에서 이상향을 뜻하였다. 이세이 미야케,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서양 복식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동양적 세계를 패션으로 나타내는데 주력하였다. 이들의 정신적 배경에는 동양의 흑색에 내재된 고고한 정신성의 청결(clean)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근저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패션이 서양에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서양 복식은 신체의 선을 살린 대칭적이면서 구축적 디자인(constructive design)이 중심을 이뤘다.³⁸⁾ 특히 1960년대 이후의 패션은 보디 어필(body appeal)한 경향이 지속되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신체의 곡선을 감추는 빅 실루엣의 비구축적(unconstructive) 라인을 제안하면서 블랙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블랙은 육체를 거부하고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억제하는 듯한 금욕적인 이미지를 증대시켰다. 1980년대는 모데

니즘이라는 이름으로 20세기를 지배했던 현대서구 문명의 한계 상황이 표면에 드러났던 시기로,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외부 세계에 눈을 돌려 민속복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디자이너들의 금욕적인 이미지는 서구 패션에서 환영받았고, 심지어 1983년 1월 Time에서는 세계의 위대한 열 명의 디자이너중 세 명이 일본 디자이너이며, 이들이 서구에서 패션 혁명(Fashion Revolution)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사회학자 크랩(Orrin Klapp)은 그의 저서 'Collective Search for Identity(1969)'에서 대중 사회에서 나타나는 의복에 대한 반응 중 하나를 청교도주의(puritanism)라고 하면서, 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요구에 복종하는 '보통' 인간보다 자신을 위에 두고, 외모에 대해 흥미를 갖는 것을 삼가며, 상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 윤리를 거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구의 청교도주의는 동양에서는 유교 정신으로 불리는데, 일본 디자이너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는 유교적 성향은 서구의 청교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비록 종교에 심취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금욕주의적인 심리는 현대인들의 내면 의식에 자리잡고 있으며, 블랙의 비구축적 디자인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5. 에로티시즘(Eroticism)-페티시즘(Fetishism)

현대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은 어디에나 깃들여 있는 것으로, 자유로운 서구 문화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의 해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의복이 성적 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은 20세기 후반에는 더욱 애매해졌고, 유니섹스 모드와 앤드로지너스 경향으로 현대에는 성에 따른 복식의 개념보다는 개성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의복이 차용되었다. 극단적으로는 성도착적 욕구를 표출하는 이미지의 패션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페티시 패션이라 하였다. 이는 페티시즘적 입장에 있는 패션으로 에로티시즘의 한 표현이었

다.

페티시 패션에서는 이성의 복장을 입는 것도 수용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성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유순하고 지배적인 역할로 대처하였다.³⁹⁾ 그것은 타고난 성에 따른 에로티시즘의 추구가 아니라, 양성적 특질을 공유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에로티시즘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였다. 1980년대의 페티시 패션은 주로 블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물론 핑크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통적 남성색인 블랙으로 여성의 신체를 압박할 때 배가되는 에로티시즘의 효과를 노린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페티시 패션의 남성은 타고난 성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성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블랙의 타이트한 소재를 통하여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성의 인간상과 부합하였다.

또한 하이 패션의 매니시 룩에도 남성색인 블랙을 받아들여 현대 도시 여성의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매니시 룩은 19세기 여성운동가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착용했던 남장과는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서구에서 1980년대를 주도하는 세대는 사회참여의식이 강한 세대였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남성과 평등한 지위를 원했으나, 그것이 복식에서 성적 매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매니시 룩의 블랙은 여성에게 강한 대비 효과를 줌으로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에로티시즘을 내포하였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는 위에서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갖추면서도, 자신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에로티시즘이기도 하였다.

V. 결 론

20세기 후반의 블랙 패션은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미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복식사 전체를 통하여 큰 줄기를 형성해 왔던 블랙 패션은 상복이나 성직자의 의복에서 나타났고, 14세기 이후에는 블랙 패션의 유행이 있었다. 특히 댄디 복식으로 블랙은 남성복의 전통

적인 색으로 정착하였다. 아르데코 패션을 계기로 블랙은 새로운 아름다움이 인식되어 블랙 패션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블랙 패션의 현상은 크게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하이 패션에서는 라인 알파벳 시대, 판탈롱 슈트 스타일, 포클로어 스타일, 매니시 룩, 일본 디자이너의 비구축적인 디자인에서 블랙의 사용이 특징적이었다.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비트 스타일, 모즈와 록커 스타일, 펑크 패션, 페티시 패션에서 블랙이 유행했다.

이와 같은 20세기 후반의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은 미니멀리즘, 댄디즘, 허무주의, 금욕주의, 에로티시즘을 찾을 수 있었는데, 첫째, 미니멀리즘은 다른 색상의 배제에 의해 색이 없는 상태인 블랙만 존재하게 함으로서 순수성을 지향하는 현대 패션의 조형의지를 잘 나타내었다. 특히 블랙은 면적을 축소하는 시각 효과를 주므로, 복식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표현하는데 블랙의 사용이 효과적이었다. 둘째, 댄디즘은 19세기 댄디 복식과 관련되는데, 과거에 고고한 정신성을 강조했던 블랙을 현대 패션에 사용함으로써, 대중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를 충족시켰다. 스트리트 패션에서 댄디즘적인 블랙은 엘리트를 모방함과 동시에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있었다. 셋째, 허무주의는 스트리트 패션의 블랙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와 반항의 의미로 사용된 펑크의 블랙은 현 사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근거로 자신들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펑크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블랙은 새로운 미의 차원을 열었다. 넷째, 금욕주의의 블랙은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의 비구축적 디자인에서 나타났는데, 절제의 미학에 바탕을 둔 정신성을 추구하는 동양 사상과 연관되었다. 다섯째, 에로티시즘은 페티시즘의 입장에서 논의하였는데, 1980년대의 페티시 패션은 블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블랙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성 정체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에서도 에콜로지 컬러가 유행하였다. 이와 함께 블랙은 잠시 퇴조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의 레트로 경

향으로 블랙은 다시 등장하였다. 특히 1996년 추동 시즌에는 블랙이 '네오 미니멀리즘(neo minimalism)'이라는 테마로 다시 제안되었는데, 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는 패션 전반에 걸친 움직임과 부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패션의 블랙은 엘리트 이미지와 동시에 반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양면성을 지녔고, 서구 패션에 동양적인 요소를 융합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변화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미니멀리즘 등을 함축하고 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개성적인 색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p.136, 1992.
2. 조규화·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이류학회지, 15-4, pp.381-392, 1991.
3. Lurie, Alison,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경춘사, p.91, 1986.
4. 베비스 힐리어,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pp. 213-214, 1983.
5. Benstock, Shari and Suzanne Ferris (ed.), On Fashion,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p.44, 1994.
6. History of Color in Paris Collection, Fashion Forum, p. 30., 1995. 12.
7. 조규화,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p.12, 1985.
8.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pp.348-352, 1992.
9. Baudelaire uvre Comtl tes Tome II, Gellimard, Paris, p.494, 1976.
10.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Virago Press, London, p.183, 1985.
11. 조규화·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이류학회지, 15-4, pp.382-385, 1991.
12.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p.35, 1994.
13. 조규화, 크리스짱 디올에 대한 연구 : 그의 작품속에 나타난 조형의 지향, 국민대학논문집, 12, p.251, 1977.
14. This Fabulous Century 1960-1970, TimeLife books, N. Y., p.109, 1970.

15. Cl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Routledge, London, p.40, 1994.
16. 윤명자, 현대 패션의 Orientalism,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 논문, pp.49-50, 1992.
17. Koren, Leonard, *New Fashion Japan*, Kodansha International, 東京, 114, 1984.
18. 앞 글, p.92.
19. Claik, Jennifer, p.41, 1994.
20. Richard, Martin (ed.), *Contemporary Fashion*, Gale Research, N. Y., p.553, 1995.
21. *This Fabulous Century 1950-1960*, Timelife Books, N. Y., p.84, 1970.
22. Yoke, Peter, *Style Wars*, Sidgwick & Jackson, London, p.11, 1983.
23. Time, p.35, 1977. 7. 11.
24.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London, p.272, 1982.
25. 조규화, 뉴 웨이브 패션, 의류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p.119, 1996.
26. Rhodes, Zandra and Anne Knight, *The Art of Zandra Rhodes*,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p.177, 1985.
27. Kunzle, David, *Fashion and Fetishism*, Rowman and Littlefield, Totowa, p.1, 1982.
28.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4, p.754, 1985.
29. White, Emily (ed.), *Fashion 85*, St. Martin's Press, N. Y., p.117, 1985.
30. 倉壽郎, 이현숙 역, *복식미학*, 경춘사, pp.125-139, 1989.
31. 고드스블롬, J., 천형균 역, *니힐리즘과 문화*, 문학과 지성사, p.40, 1988.
32. 부어, 만프레드, 알프레드 코징,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소사전*, 도서출판 동녘, pp.114-115, p394, 1981.
33. Hebdige, Dick,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Methuen & Co. Ltd., London, p.109, 1979.
34. 힐리어, 베비스,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화사, pp. 270-271, 1983.
35. 고드스블롬, J., 천형균 역, *니힐리즘과 문화*, 문학과 지성사, p.42, 1988.
36. Wilson, Elizabeth, p.196, 1985.
37. Roach-Higgins, M. E and J. B. Eicher, 이유허·이은숙 역, *가시적 자아 : 복식의 관점에서*, 경춘사, p.181, 1990.
38. 조규화, *구축적인 디자인과 비구축적인 디자인*, LG AD, p. 48, 1995. 8.
39. Polhemus, Ted,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London, p.105, 1992.

(접수일자 : 1997년 3월 5일)